1,065대 1

광주·전남 선관위 9급 공채 … 전국 최고 경쟁률

대학생 26% '공무원' 준비

광주·전남지역 선관위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1천65대 1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7일 실시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0명 선발에 4만7천163명이 응시, 평균 6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광주·전남·전북이 6명 선발에 6천390명이 지원, 가장 높은 1천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인천·경기·강원이 714 대 1, 대구·경북이 696 대 1, 부산·울산·경남·제주가 665 대 1, 대전·충북·충남이 538 대 1, 장애인이 19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은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히며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학생 1천238명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 공무원이 10.1%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금융직(9.9%), 연구개발직(4.9%), 교사·교수·교직원(4.0%), 마케팅·광고·홍보직(3.6%), 일반사무직(2.8%) 등의 순이었다.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안정성(30.5%)과 소득(27.9%), 비전(25.0%)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흥미·적성(13.0%)을 고려한다는 이는 많지가 않았다.

잡코리아는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몬과 함께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천40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25.7%가 '예'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대학생들은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82.3%)라고 입을 모았다.

/김주정기자 jjnews@·연합뉴스

광주 중장년층 금연 늘었다

불경기 여파 … 클리닉 등록자 작년보다 34% ↑

청소년층 흡연은 꾸준히 늘어

경제난 여파로 담배를 끊으려는 중장년 금연족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시 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30대 이상 금연 희망자는 6천65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천987명에 비해 34%(1천672명) 증가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 프로그램, 금연보조제 지급 등을 통해 금연을 돕는 기관이다.

이는 연평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최근 경제난의 영향으로 과감하게 금연을 시도하는 끽연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연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2천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는 한 달에 7만7천500원을 써야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면서 금연족들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의 금연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가 거둬들이는 담배 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1~6월) 324억7천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4억5천100만원으로 15.3%(49억8천100만원) 증가했다.

시는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새롭게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중장년층 금연인구를 압도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연초에 금연을 시도했다 실패한 중장년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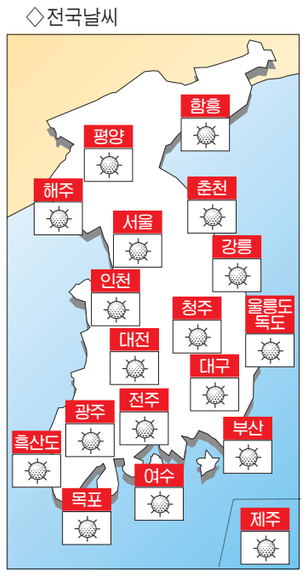
식지않은 한낮열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8월 5일 (음 7월 5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 음	22~33℃
목 포	구름 조금	22~31℃
여 수	구름 조금	24~31℃
완 도	구름 조금	22~32℃
구 례	맑 음	21~34℃
해 남	구름 조금	21~32℃
장 흥	구름 조금	21~32℃
고 흥	구름 조금	21~32℃
순 천	맑 음	20~34℃
영 광	구름 조금	21~32℃
진 도	구름 조금	22~33℃
전 주	맑 음	21~33℃
남 원	맑 음	20~33℃
흑산도	구름 조금	22~2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4:47 17:03 썰물〈 09:53 22:03
여 수 밀물〈 11:32 23:42 썰물〈 05:16 17:26

▲해뜸 05:44 ▲해짐 19:32 ▲달뜸 09:36 ▲달짐 21: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 씨						
최저/최고	23/33	25/34	25/34	25/33	26/33	26/33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 예외일 수 없다

광주 서부署 깜짝단속에 '화들짝' … 다들 무사통과 '안도'

광주의 한 경찰서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광주서부경찰 교통지도계 직원 등 3명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서부서의 이 같은 단속은 백혜웅 서장 취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음주운전 예방을 단속 경찰관부터 솔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날 음주운전에 응한 직원은 40명. 다행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단속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홀짝제 단속인 줄 알고 차량 번호를 재차 확인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서부경찰은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직원은 "며칠 전부터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할 줄은 몰랐다"며 "이젠 경찰서도 더 이상 음주운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청자 재현 '한지 燈'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강진군 청자박물관에 국보급 대형청자를 재현한 한지 등(燈)이 선보였다.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청자박물관과 도요지 일대에서 열리는 청자문화제는 '태안앞바다 강진청자보물선 인양 유물 특별전', 세계도자기 특별전, 국제도예작가 워크숍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다. /강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북구청 '장·동·일' 인사?

'장성군·동명교회·광주일고' 출신 특혜 … 뒷말 무성

광주시 북구청이 최근 단행한 승진·전보인사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 뒷말이 무성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의 고향과 종교, 출신 고교와 관련 이른바 '장동일'(장성·동명교회·광주일고)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5일 인사에서 5·6급 14명(기술직 제외)을 승진·전보했다.

이 중 '장동일' 코드인사 입방아에 오른 인물은 5명으로, 이중 1명은 5급으로 승진됐고 2명은 6급으로 승진됐으며 2명은 이른바 '좋은 자리'로 전보됐다. 이들 5명은 ▲장성 출신이 2명 ▲동명교회 교인이 1명 ▲광주일고 출신이 2명이다.

북구청의 한 직원은 "오죽 했으면 청사 내에서 '장동일' 인사라는 말까지 나돌았겠느냐"며 "일각에선 이 밖에도 더 많은 '장동일'이 발탁될 뻔 했으나 일선 과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장동일 코드인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들의 경우 그동안 인사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며 "'장동일'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K2 실종 3명 전원 사망

히말라야 K2(8천611m) 등정에 나섰다가 실종된 한국 산악인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경남산악연맹 조형규 회장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현지 김재수 원정 총대장과 어렵게 위성전화 통화에 성공했으며 실종된 산악인 3명은 모두 숨졌고 현재 '제2의 구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발 8천m 캠프4에 머물고 있던 김 대장을 비롯해 산악연맹 소속 대원들이 사고지점에서 조난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며 숨진 조난자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연합뉴스

憲裁 "청원경찰 노동3권 제한은 합헌"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청원경찰의 근로3권(단체행동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모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대책기구' 지자체에 의무 설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